

보도시점 2026. 7. 16.(목)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 7. 16.(목)

기후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전 호남권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방안 잠정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는 7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호남권 반도체 세부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 후 공급방안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초기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인근 전력망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반도체 산단 예정지까지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 날 논의를 통해 황룡강과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최종 공급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2030년 적기 가동을 위해 필수 인프라인 전력설비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어 지중화 등을 통해 20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서는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만큼, 기후부를 중심으로 전력망 적기구축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부(영산강유역환경청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 장성군 포함),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박성열 (044-203-5123)
			주무관	김훈경 (044-203-5129)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책임자	과 장(代)	이재철 (062-613-3770)
		담당자	팀 장	범영석 (062-613-3790)

